

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 문곡(文谷)

문곡은 ‘글을 잘하는 선비들이 많이 난다’하여 붙여진 마을이름으로 큰문곡과 작은 문곡으로 나눈다.

3) 영굴

영곡이라고도 부르며, ‘아홉마리의 용이 지나간 자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제14절 소태1리(蘇台一里)[속명 : 온계(溫溪)]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 오태산(五台山)과 소태2리가 있고, 서쪽은 태백산맥(太白山脈)이 뻗어 백암산(白巖山)[1,004m]을 이루고 있으며, 남쪽으로 갈미봉과 양남아(陽南阿), 음남아(陰南阿) 마을이 있다. 북쪽은 샷갓처럼 생긴 서화산(西華山)[493.5m]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녹정마을 형국을 ‘가마솥 밑바닥 형국’ 또는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형국’으로 인식한다. 절태골과 정궁, 까치거랑골, 정거랑골의 네 곳의 물이 합수하여 소태리로 흐르므로, 마을에 물이 끊기지 않는다고 하여 ‘사금도(四金道)’ 형국이라고 전한다. 마을회관은 2009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국민 온천으로 사랑받는 백암온천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2. 마을의 역사

1420년(세종 2)경 평해 황씨(平海黃氏)가 이 마을에 들어와 다래냉쿨을 치고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이 마을에 온수(溫水)가 용출(湧出)되어 마을 이름을 온계(溫溪)라 하였다. 그 후 영양 남씨(英陽南氏), 광주 이씨(廣州李氏), 김녕 김씨(金寧金氏)가 이곳에 입주(入住)하면서, 동쪽으로 오태산(五台山), 서쪽으로 백암산(白巖山), 남쪽으로 갈미봉, 북쪽으로 서화산(西華山)이 아름답게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하여 밝을 소(蘇)자와 오태산(五台山)의 태(台)자를 따서 소태(蘇台)라 하였다. 녹정(祿井)마을은 약 500년 전에 평해 황씨(平海黃氏)와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정착(定着)했으며, 바위 밑에서 쌀이 솟아 나오므로 녹(祿)바위라 하고, 마을의 위쪽에 맑은 찬물이 나온다고 하여 녹정(祿井)이라 하였다. 소태의 수구신과 반석

신이 있는 녹정천 하류에 각석문이 있다. 마을의 동쪽에 광주인 백은 이천추 선생이 지은 강학당인 백은재가 있다. 소태1리의 백헌정은 1590년(선조 23)에 진사였던 백헌 남응량이 온계 동으로 이주하며 지은 정자로서 강학당이다. 백암관광호텔의 우측에 백암사지가 있다.

3. 가구 분포

총 171세대가 거주하며 영양 남씨(英陽南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광주 이씨(廣州李氏), 봉화 정씨(奉化鄭氏), 청주 한씨(淸州韓氏), 평해 손씨(平海孫氏), 안동 권씨(安東權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백암암(白巖岩)

백암산(白巖山)의 정기(精氣)가 이어지는 소태천(蘇台川) 건너편에 있는 암벽을 백암암이라 부른다.

제15절 소태2리(蘇台二里)[속명 : 상소태(上蘇台)]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소태1리와 연접(連接)하고 오태산(五台山)과 공시들이 있으며, 남쪽은 온정리(溫井里)와 접한 그릿들이 있고, 북쪽은 서화산(西華山)이 우뚝 솟아있다. 마을회관은 2008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420년(세종 2)경에 평해 황씨(平海黃氏)가 이곳에 입주하여 다래냉쿨을 치고 개척할 때 동쪽으로 오태산(五台山), 서쪽으로 백암산(白巖山), 남쪽으로 갈미봉(峯), 북쪽으로 서화산(西華山)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어 밝을 소(蘇)자를 따서 소태(蘇台)라 하다가, 약 200년 전에 황명규(黃命圭)란 선비가 마을이 물 흐르는 위쪽에 있다 하여 상소태(上蘇台)라 하였다 한다. 1765년경에는 현 소태1리와 함께 강원도 평해군 원서면 소태리에 속했고, 1912년에 강